

# 信義社會 實現과 無自欺論 및 精神開闢의 길

安鍾沅

## 目次

### 緒論

#### I. 無自欺論

1. 自由와 平等의 調和와 無自欺
2. 憲法 꼭 고쳐야 할 곳
3. 選舉法 全幅的 改革을 위하여

#### II. 精神開闢論

1. 生物學的 人生精神
2. 精神開闢의 길

#### 結論

## 緒論

前 論文集에서 '信'을 人間·社會 健康信號德이라 표현한 바 있다.

한 人間이 道德的으로 健全한가 虛弱한가 他人이 直感할 수 있는 것은 基本德으로서의 '信'이라 할 수 있으니 對人關係에서 信義를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 直發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이 먼저 알게 된다.

仁·義·禮·智·忠·恕·博愛·慈悲와 같은 큰 德은 눈으로 볼 수 없는 深奧(심오)한 精神世界를 개척한 人格內容이기에 他人은 時間을 두고 접촉해 보아야 서서히 드러나는 德이지만, 信은 文字構造가 '人'과 '言'이 合해서 이루어지듯 「사람들과 言約을 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는 뜻의 글자이다. 그래서 '信'은 나 一身만으로는 效力이 드러나지 않고 社會的 存在로서의 人間이 社會生活하는데서 信의 빛이 난다.

信義가 없는 사람 對人關係에서 言約한 事實을 지키지 않으면 '背信者'라 公認되고, 매우 힘든 條件을 딛고 넘어서 實行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信人'이라 讚辭를 아끼지 않는다.

\*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前 論文에서도 言及한대로 信人되기는 他 道德目에 比해서 實踐하기가 修養이나 修道를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簡明하여 누구나 信人될 수 있으니 즉 白은 白이라 하고 黑은 黑이라고 事實대로 밝히는 基礎的 信으로부터 시작하여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公正 判斷을 할 것이며 옳은 일은 先行하고 그른 일은 沮止하는 行動하는 信義人이 되는 단계가 限없이 높다.

信人으로부터 信義人界는 無限階段이 있으니 옳은 일은 生命을 걸고 克服하고야 마는 強意志는 偉大한 信義가 아닐 수 없다.

이 信義人은 修道해서 達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갇음이 곧은가 弱한가 일 뿐이다. 倫理人이라 하여 倫理 道德學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다고 實行하지 못하고, 宗教人이라 하여 밤·낮 없이 祈禱에 情誠을 다한다고 信義人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信心 信意志는 一朝一夕에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精神教育으로 成長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치 한 乳兒가 出生하면서 母乳를 먹고 자라는 것처럼 人生의 精神도 出生初期는 人生初心이 家庭에서 父母 兄들의 마음 씀씀이가 精神糧食이 되어 어떤 精神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成長 後日에도 人間性의 됴됨으로 형성될 것이다.

한 家庭에서 家族들이 서로 무슨 일을 하기로 決定하고 다음 날 잇은 듯 實行하지 않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 茶飯事로 생각하면 그 집 幼兒는 成長하면 ‘約束’은 ‘안 지키는 것’으로 觀念化될 것이다.

그러나 좋은 가정환경에서 成長한 少年은 어려서부터 父母兄弟가 한 번 한다고 한 일은 안 지키면 큰 일이라도 나는 것으로 배워왔고 보아와서 말 自體가 規則으로 意識化되면 自然스럽게 信人이 되고 成長하면서 信義人이 된다.

그러나 少年이 靑年되면서 좋은 家庭환경만이 아닌 多樣多難(다양다난)한 社會환경을 접하자 몰랐던 社會象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신귀롭고 好奇心을 끌어 좋지 못한 일을 쉽게 배우게 된다. 우리 既成世代가 보더라도 社會의 거울(鏡)이라 할 TV의 뉴스 기타 ‘볼거리’라고 하는 것들 크게 有益될

것 많지 않은 속에서 電子오락물의 유혹은 百害無益한데 靑少年들의 마음을 끌고 간다.

우리 社會환경 속에서 信義精神이 함양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人士는 거의 없을 것이다.

學校 교육에나 기대하지만 오늘날의 公敎育도 世態에 追從하여 人間機械化敎育으로 기울어서 信義人間敎育은 찾아보기 어렵다.

信義가 없는 社會를 不信社會라 하거니와 「너는 나를 속이고 나 또한 너를 속이지 않을 수 없는 社會」인 바 이런 삶의 場에서 산다는 것은 不幸의 主人公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누구에게 원망할 문제가 아니요 人間들의 自作이므로 그것이 싫다면 自力으로 해결할 도리밖에 없다.

뜻 있는 知性人들은 人道가 땅에 떨어져 사람다운 人間 갈 길이 없으니 人道 곧 倫理를 回復하는 도리 이외에 없다고 慨嘆(개탄)을 하고 있지만 公敎育에서도 倫理 疏外 風潮 막을 길이 없어 긴 한숨을 쉬게 되었다.

多幸히 一部 宗教界에서 道義 回復運動에 힘을 쓰고 있는 것 希望一端을 갖게 한다.

本 論文도 그 一環으로 執筆中에 있다.

主題가 「無自欺」(무자기) 「精神開關」(정신개벽)인 바, 너무나 이 때에 適中한 課題가 아닌가 생각한다.

두 사람이 있으면 基礎社會가 성립되는데 「나」와 「너」는 基礎社會 單位構成員이다. 그 두 사람이 「너」가 「나」를 속이고(欺), 「나」 또한 「너」를 속인다면 社會의 基本부터 「속임」으로 시작하고 있다.

政治人들이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는 「正義社會」실현은 現社會가 不正社會임을 反證함이요, 不正社會이기 때문에 正義社會 建設하자는 것이요 이 미 서 있다면 또 세우자는 말이 不必要한 虛言일 것이다.

官廳 현관 正面에 「正義社會 具現」을 크게 써 부쳐놓은 것을 보면 「不正社會를 당해서 正義社會 具現할 것을 使命으로 하자!」의 約語로 본다.

이 문제는 누구가 勸告해서 될 일이 아니라 國民 전부가 各者의 일로 自責해야 할 일이다.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너는 나를 속이고 나는 너를 속이면 둘 다 ‘欺人’ ‘속임꾼’임에 틀림없다.

나 혼자 있다면 속일 사람이 없어 ‘속임꾼’만은 免(면)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實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남(他人)을 속이자면 相對方 사람에게 「내 말은 참 말이니 내 말을 믿어 주시요」라고 말하는 그 自體가 自己 良心을 속이고 있어 第一次로 自己 良心에게 「저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거짓말인데, 내 良心도 참 말이라고 믿어주오」

여기 自己가 自己良心을 속이는 一次關門을 통과해야 二次로 相對方에게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인데) 내 말을 믿어주시요, 참말이니까」 良心이 부끄러워서 事實을 차마 밝힐 수 없어 諛호 속에 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속임꾼’은 혼자 있어도 自己良心부터 속이고 他人들을 속여 人生一平생을 거짓으로 살다가는 것이다.

우리 人生을 이렇게 살 必要가 있을까?

그래서 大巡眞理會 道主(趙鼎山)께서는 不正社會를 바로잡고자 無極道를 創道하셨다.

典經 교운 제2장 32항을 인용한다.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 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上帝)를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 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

#### 종지(宗旨)

음양합덕 · 신인조화 · 해원상생 · 도통진경(陰陽合德 · 神人調化 · 解冤相生 · 道通眞境)

#### 신조(信條)

사강령(四綱領)···안심(安心) · 안신(安身) · 경천(敬天) · 수도(修道)  
삼요체(三要諦)···성(誠) · 경(敬) · 신(信)

#### 목적(目的)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關)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개벽(世界開闢)

不正이 너무나 많은 社會, 그래서 믿을 수 없는 不信社會를 뜯어 고치려고 本 宗教를 創道한 目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너를 못 믿기에 앞서 내가 나를 못 믿는 人生들의 모습」은 참으로 不潔(불결)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煉炭貨物車의 助手는 낮 作業中에는 세수하기를 아예 포기하고 거울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 黑人같은 얼굴 홍보는 사람이 없지만 正常的 生活人들 걸 모습은 아름답게 화장할 줄 알면서 良心이라고 하는 마음거울(心鏡)속에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二重人生 그래서 '妖物같은 사람' 妖人(요인)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 心鏡이 있다면 二重人格者의 모습이 가장 不潔한 人生이라 할 터인데 그것이 없어 모두 거짓말로 僞裝하여 아름답고 바르게 보이고 있다.

不正社會이기 때문에 公公然하게 正義社會 建設을 力說하고 있고, 믿을 수 없는 社會相이기에 信義社會를 所望하고 있는 現 人間界에서, 고칠 수 있는 길은 남을 속이기 前에 각자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無自欺의 敎訓을 마음의 거울(心鏡)로 삼아서 수시로 비추어 보는 習性을 길러야 하겠다.

韓民族에 의하여 創道된 宗教 無極道를 계승한 大巡眞理會의 宗教目的의 첫 자리가 「無(毋)自欺」인 것은 不正 不信社會의 根源이 바로 「내가 나를 속이기 때문」이라고 診斷함은 정확한 진단이요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를 속이면서 正義社會를 具現한다는 豪言 어떻게 믿겠으며, 政治한다는 政治人들의 行態 너무나 言行이 맞지 않아 不信社會는 저렇게 되어 감을 實感하게 된다.

筆者 本 論文을 執筆하며 어느 누구의 學說을 參考함이 없이 獨創 論文을 쓰지 않을 수 없는 苦衷은 「無自欺」의 社會診斷의 解明이 類例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國家社會가 不正 不信社會가 된 것은 國民 모두가 原因者의 責任이 있으

나 가장 큰 責任은 爲政者들이고 그 根源은 나라를 다스리는 法 그 中에서도 最高의 母法인 憲法이 國政의 方向을 잡아준다.

그래서 國政의 羅針盤이라 할 憲法이 조그만 잘못이 있다면 千里 萬里 長程 떠나는 사람이 첫 발짝 方向이 틀리면 가면 갈수록 誤差는 더더욱 擴大되는 原理와 같다.

이것이 國民 한 사람·한 사람이 다 不正 不信人이면 全體的으로 不正國 不信國이 되는 것이다.

筆者 本論에 들어가서 國政 母法인 憲法이 잘못되어 國政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가를 例證하기로 한다. 마침 最近에 脫稿하고 製本中에 있는 「民主政治 革命論」의 끝章 끝節을 引用하기로 한다.

「無(毋)自欺」란 거듭 말하지만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이 없을 것」인 바, 「속이는 일」은 이미 道德的 罪요 自己를 속이는 사람은 「道德的 犯罪 첫 사람」인 것이다. 모든 것이 '1'로부터 시작하여 百千萬...더 큰 數로 커가듯 道德的 心罪가 物理的 大罪를 犯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남 모르게 내 良心을 속이는 것 무슨 罪인가?」 하겠지만 그 心性이 習慣化되어 他人들에게 거짓말을 자조하면 말이 不通하는 動物的 人生으로 墮급되어 장차 行動이 動物 그 以下の 作態를 들어낸다.

「毋自欺」는 바로 原因的 罪가 싹 틀 때 뿌리 뽑자는 것이다.

樹木도 發芽할 때는 뿌리 뽑기 쉬워도 中木 大木이 되면 除去하기 힘들다.

「自欺」가 道德的 罪人으로 一步를 내딛는 것이다.

一步를 내딛기 시작하면 二·三·四...步는 가볍게 速行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애당초 一步를 내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毋自欺 訓戒의 要旨이다.

다음 第二 目的論 「精神開關」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人生의 精神 性能을 알아야 하는 바, 人生은 生物學的 측면에서 動物科에 속해 있으므로 他動物과 다를 것 없는 共通 本能이 있는 것은 是認하고, 本能欲求를 만족시키려는 生態를 圓으로 표시하면 水平 直徑線을 '0'線이라 치고, 人生만은 高等動物科에 속하기 때문에 欲求도 旺盛하고 緻密

한 것은 腦細胞가 精密하게 조직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一般動物과 共通 本能만 만족시킨다면 '0'線의 充足일 터인데 '0'線 以上 '十' 欲求 充足시킴만 有益한 欲求充足이요 害롭게 多欲充足시키면 '0'線 以下 '一' 欲求充足이 될 것이다.

이렇게 '十' 欲求充足과 '一' 欲求充足 兩面作用할 수 있는 能力의 所有者가 人生인 것이요, 그 多欲能力은 곧 腦細胞 조직이 精密하기 때문이다.

그 精密한 뇌세포를 有益하게 活用할 것이나, 有害하게 過欲充足하느냐에 따라 精神作用이 上·下 兩面 作用의 高質 精神인가 低質 精神인가로 兩分 된다.

主題의 精神開關도 이 脈絡에서 이해되어야 科學的 精神開關論이 될 것이다.

本論에서 圖表로 해설하기로 한다.

## 本 論

### I. 無(毋)自欺論

緒論에서 不正 不信社會가 된 까닭은 世人들이 서로 못 믿고 심지어 사람마다 自己良心을 속이는 世態 때문이나, 綜合的 責任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政治人들이 옳지도 바르지도 못하게 國事를 운영하는데서 國民의 信任을 못 받고 不信社會가 됐다고 하였다.

특히 國政의 紀綱을 세우는 母法인 憲法이 公正하지 못하거나 矛盾의 素地가 있다면 마치 異常있는 羅針盤을 따라 航海하는 船舶과 같을 것이다.

憲法理上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서 矛盾이 있어 自由民主主義國家가 民主大義에 어긋난 失政을 2·3節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矛盾'이라는 概念 自體가 不合理性을 지적하여 誤謬를 犯함을 警告함인바, 한 事件 한 言命을 A라 하고 同時에 A아닌 것 즉 非A라 하는 것을 矛盾이라 한다. 하나의 事實을 A라고 했다가 非A 즉 B라 한다면 眞이 있을 수 없어서 無秩序의 場이 되고 말 것이다.

法理 解釋도 한번 옳게 판단 내리면 그에 따를 것이요 解釋者가 有利하게 적용하면 不正의 素地를 안고 있게 된다.

그러므로 矛盾의 素地가 있는 法이나 政策은 解明해야 한다.

## 1. 自由와 平等의 調和와 無自欺

人類가 歷史이래 개발하여 온 最善의 삶의 方法이라면 民主主義였다.

人民이 自由롭고 모두가 平等하게 優待받으며 산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 없는 榮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自由를 制限없이 放任하다 보면 他者들과 競爭되고 그 格差가 지나치게 擴大되어 不平等이 不滿스럽고 怨恨까지 초래하여 왔다.

그렇다해서 自由를 規制하면 平等은 실현이 可能하나 自由가 희생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自由와 平等은 相和되지 못하고 相衝함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이러한 相衝關係에 있는 對立概念을 論理學에서는 矛盾概念이라 한다. 그 대표적 矛盾對立概念은 '生'과 '死'로서 生한 者는 죽지 않은 상태이고, 死하면 生이 끝난 상태로 再生은 不可하다는 것이 實相인 것이다. 이렇게 兩立이 不可能한 두 概念이 矛盾概念인 바 民主主義의 兩翼이라 할 自由와 平等이 矛盾關係에 있는 極限 對立概念의 運命에 있다.

20世紀까지는 이 難題를 풀지 못하고 계속 상태에 놓여 있다.

21世紀가 되어서 큰 政治發展을 한다면 自由와 平等이 相衝對立하지 말고 相和 相生概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의 歷史的 經驗으로는 不可能狀態에 있다.

大韓民國이라고 해서 獨出하여 이 自由와 平等을 相和 相生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21세기가 變化없이 지속한다면 民主主義의 兩翼 自由와 平等이 相生 못하고 半能政治를免치 못할 것이다.

우리 知性人이라 하는 이들의 課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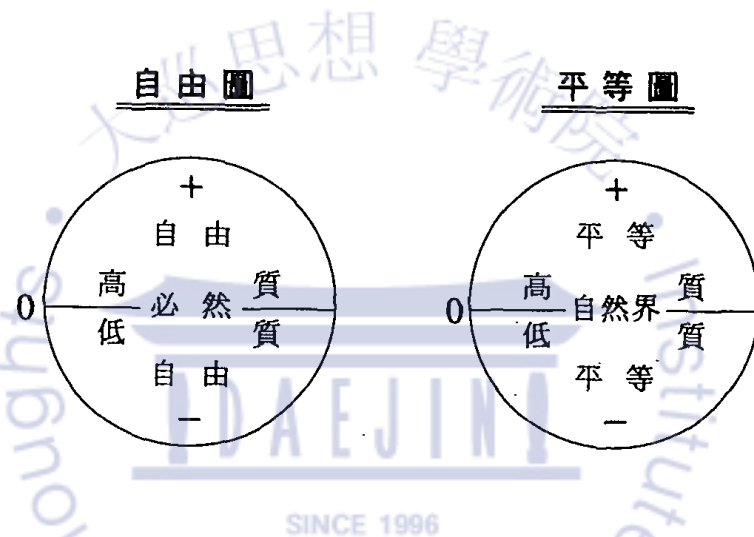
筆者는 이 問題를 平面狀態에서 擇一方法만 생각하지 말고 兩生의 길을 찾자면 次元을 높혀 相乘相生概念 되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자면 自由와 平等을 質的으로 分析하여 一面만 보지 말고 兩面을 보자는 것이다.

즉 無條件 自由, 無條件 平等을 讚揚하지 말고 有益한 自由 有益한 平等만 宣揚할 것이요 無益하고 有害한 自由와 平等을 索出(색출)하여 憎惡(증오)할 수 있는 智慧와 勇氣가 있어야 한다.

有益한 自由와 平等은 高質的 自由와 平等이고 有害한 自由와 平等은 低質的 自由와 平等이다. 圖表로 說明한다.



### <自由圖>

하나의 圓 전체를 自由의 面積이라보고, 圓의 半分 直徑線을 0, 0 以上을 '十' 自由, 0 以下를 '一' 自由라 稱한다.

'十' 自由는 增加의 自由, 肯定的 自由, 積極的 自由, 發展的 自由, 建設的 自由, 創造的 自由를 의미한다.

'一' 自由는 減少의 自由, 否定的 自由, 消極的 自由, 退步의 自由, 墜落의 自由, 破壞의 自由가 이에 속한다.

0線은 + - = 0의 原理에 따라 '零'이므로, 零은 'zero' 즉 '無'를 뜻하며 곧 '無自由'가 되어, 이것은 自然 必然의 法則에 지배됨을 말한다.

筆者는 人間에 대한 人性的 高찰로 '自由의 存在'라 파악하는 바, '自由人'이란 바로 自由의 構造分析에 따라, 모든 生命體가 共有하는 自然 必然의 法則에 지배받으면서 自然狀態에 만족하지 않고 自然의 攝理를 活用하여 精

神的 物質的 欲求를 高度의 思惟作用으로 끝없이 充足시켜 갈 수 있는 偉大한 創造의 自由가 있는 반면, 自然의 攝理로도 상상 못할 무서운 破壞와 醜惡한 自由의 能力까지 同等하게 保有하고 있다고 본다.

0線(自然狀態의 人間)에서 上·下 어디를 擇할 것인가? 그것까지 選擇할 自由權을 장악한 自由人이 人間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을 尊嚴하다고 讚美할 수 있는 것도 실은 '十 自由'의 領域만을 이룸이요, 人間을 醜惡하고 惡毒하다고 저주하는 것도 '一 自由'의 영역을 보고하는 偏見임을 알 수 있다.

自由人이란 創造와 破壞를 동등하게 行할 수 있는 可能性의 所有者임을 말한다.

必然人인란 動物共有屬性인 本能的 欲求에만 지배되는 人生을 이룸이다.

#### 〈平等圖〉

우리는 그 間 民主主義를 論할 때 自由와 함께 平等을 高貴한 兩大人權思想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推己及人」하는 「恕」의 精神이 缺如된 平等은 強制平等 아니면 惡平等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社會主義陣營이 내세우는 平等은 物量的 平等만을 目的으로 하는 바, 平等의 質的 分析을 모르고 있다.

平等의 精神이라고 하여 모두 소중한 것은 아니다. 平等을 量的으로만 보았을 때 不平 不滿없는 同等의 平準化라 하겠으나 이것은 平面的 平等 또는 單線平等에 불과하고, 立體的 平等 즉 質的 平等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立體的 平等이라고 하면 水平的 平等 自體를 否定하는 反平等이요 矛盾平等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上向平等인가 下向平等인가를 고려한다면 '平等의 質'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된다.

上向平等은 '十 平等'으로 보탬이 되는 有益한 平等이며, 下向平等은 '一 平等'으로 害로운 平等이다.

'十 平等'은 質적으로 肯定的, 積極的, 發展的, 生産的, 創造的, 偉大한 平等이며, 價值論적으로 道德的 善의 平等이다.

'一 平等'은 質적으로 否定的, 消極的, 退步的, 消費的, 破壞的, 低質的 平

等이며 價値論的으로 反人道的 惡平等이다.

‘十’와 ‘一’의 境界가 되는 0線은 무엇일까?

그것은 보탬이 되지도 害로울 것도 없는 無益無害한 平等으로 自然의 平等現象이며 自然의 攝理의 公平性이라 하겠다.

莊子の 思想 齊物論的 平等이라 하겠다.

人間이 自然의 攝理로 태어난 狀態에서는 動物이지만, 創造的 自由인 「忠」을 다하여 偉大한 自我로 발전하면서 내가 願치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고(己所不欲 勿施於人), 나의 소망을 달성하면 남들까지 나의 水準으로 이끌어 올리는(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恕의 精神으로 人類 共榮에 이바지하려는 偉大한 平等을 실현하는 점에서 萬物의 靈長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을 猜忌(시기)하고 嫉妬(질투)하며 憎惡(증오)하여 끌어내리려는 不平分子가 있는 바, 이들이 ‘一 平等者’요 自然狀態로 사라가는 動物만도 못한 反人間이다.

지금까지 世人들은 ‘自由’라 하면 質的分析이전의 ‘十·一’混質 自由만 알았고 그것도 ‘一’쪽으로 기운 低質自由 가까운 自由가 全自由로 알아와서 ‘나’하나 能力껏·재주껏·잘 사는 ‘힘’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남에게 끼치는 영향을 배려하는 倫理意識은 생각할 수 없었다.

筆者는 ‘忠’에서 前近代的 服從의 美德的 忠을 배격하고 「民主德目으로서의 忠」 「創造的 自由行爲」라 規定(筆者의 學位論文)하고 바로 高質的 自由行爲의 典型을 忠에서 찾았다.

高質的 自由行爲는 絶대로 他人에게 被害끼치기보다 반대로 他人들을 擴大된 ‘내 몫’으로 생각하여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도 有益하게 波及되어 高位平等을 갖어 온다. 이것이 前近代的 忠과 21世紀 以後 後天 忠의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平等 또한 前近代的 平等은 水平을 鐵則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質的 平等은 上·下 어디를 基準으로 하는 平等인가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低位平等은 關心外로 문제삼지 않고 오직 高位平等만을 추구한다.

偉大한 高位平等은 前述한 「己所不欲 勿施於人」하고 「己欲立而立人 己

欲達而達人」하는 精神 즉 「怨」가 高質平等으로서 萬人을 尊嚴하게 대우하고 同苦同樂하는 平等이다. 여기 自由와 平等이 相生하여 兩立함을 보게 된다.

모두 高質自由와 高質平等이기에 兩立相生함을 確認한 바, 지금까지 矛盾概念으로 對立하였다는 사실은 道德없고 倫理 모르는 自由와 平等이었음을 覺醒해야 한다.

만일 21世紀가 열렸어도 舊態依然하게 政治와 倫理道德이 異質分野라고 생각한다면 自由와 平等이 길이 만날 수 없는 不相容의 單一翼的 役割밖에 못 할 것이다. 그래서 正名民主主義는 幻想政治로 現實과는 큰 거리를 남기게 될 것이다.

여기 「無自欺」의 敎訓이 登場하지 않을 수 없다.

無倫理 無道德社會는 野人社會로서 動物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孟子도 다음과 같이 言明하였다.

「孟子 말씀에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매우 微細하다. 凡人들은 그것을 잃고 君子는 잘 보존한다. 舜임금께서는 만물의 事理에 밝으셨고, 人倫을 통찰하시어 仁義에 따라 順理대로 行하셨고 仁義를 의도적으로 行하시지는 않았다.」

(孟子曰人之所以異於禽獸者, 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舜明於庶物, 察於人倫, 由仁義行, 非行仁義也.)(孟子:離婁 下)

人間이 萬物の 靈長이라 해서 他動物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 길러서 가르쳐 주신 父母에 대하여 感謝하고 報恩하려는 당연한 心情이라는 孝로부터 道德이 싹트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며, 굽은 것은 굽었다 하고 곧은 것은 곧다 하는 正直한 마음에서 信義社會의 싹이 트는 것인데, 世人들은 본 事實을 보지 않았다 하고 알고 있는 일 모른다 僞證하는 不正한 마음씨가 不正社會를 만들고 있다.

조그만 利害문제가 결부됐다 하면 良心이 허락하지 않는 일 어기고 敢行(감행)하는 世態, 여기 正義는 失蹤되고 信義社會는 古代화된 듯 하다.

「白은 白이고 黑은 黑이다」라고 事實대로 밝히는 習性이 長期化되었다면 僞心이 나오지 못할 것을 私教育 公教育이 打算時代에 漂流되어 信義

는 빛을 잃어가고 있다.

公·私教育에서도 참(眞)人間教育을 기대할 수 없는 것 宗教界에서 「無自欺」를 第一目的으로 내세우는 宗團이 있음은 濁流속에서 淸淨水 한 줄기가 옴터 나오는 것 같다.

宗教人들은 社會淨化士의 役割하기를 懇望하나 宗團內部가 紛糾가 있다면 示範이 못될 것이다.

天地神明께 떳떳할 만큼 無自欺해야 道通의 門에 들어설 基礎資格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無自欺」문제는 信義社會 正義社會 具現에 관한 문제와 直結되며 더 구체적으로 國事를 다스리는 政治에 있어서도 「無自欺」의 原則을 벗어나면 옳은 政治는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을 어떻게 勘定할 수 있는가 할 때 國政 母法인 憲法이 一絲不亂하듯 事理가 條理整然하고 公明正大한 治國原理로 一貫하기를 그 나라 國民이면 모두 바랄 것이다.

그러나 韓國 憲法의 경우 全 國民이 全幅的으로 信賴할 수 있는 政治가 못될 素地가 있고 있는 곳이 있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無自欺」란 「自己가 自己를 속이는 것」으로 矛盾을 犯하지 말라는 警告라 한바, 國法에 矛盾은 秋毫도 없어야 하고 秋毫라도 있다면 그 政治는 어떤 結果를 가져오는가 例證하고자 한다.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無自欺」律이 國家的으로 擴大되면 어떠한가 實感할 수 있는 資料로서 筆者가 最近 執筆 完了한 「民主政治 革命論」이라는 著書 原稿가 있어 그 끝 章 끝 두 節을 이에 引用하기로 한다.

## 2. 憲法 꼭 고쳐야 할 곳

憲法이라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根本法」이라 간단히 定義내리면 큰 잘못은 없겠고 그 中에서도 그 나라 憲法의 核心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바로 '前文'에 있다 해도 異議(이의)는 없을 것이다.

憲法 專門學者 아닌 입장에서 보면 '前文'이라는 用語가 憲法 根本精神을 集約(집약)的으로 表明한 글이라고 하기에는 內容이 없는 글 같은 아쉬움을

속일 수 없다. 「앞에서 하는 글」 정도의 가벼운 글이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법의 母法인 憲法の 「머리 글」(頭文)이므로 「總論」의 성격의 글이라 할 것이다. 물론 本論에 들어가 第一章이 總綱(총강)으로 시작하여 第1條가 [國號·政體·主權] 이기 때문에 ‘總’字는 곧 이어 나와서 그 보다 더 ‘앞 자리의 글’이라 ‘前文’을 해석해본다.

憲法の 總綱에 앞서는 뜻깊은 ‘前文’의 구성이 400字 남짓하게 즉 200字 원고지 二枚 남짓한 簡明(간명)한 글 속에 ‘自由’라는 語彙(어휘)가 세 번 나올 만큼 소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다.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세 번 나온다.

첫번째 自由는 政體로서, 이 나라는 自由民主國家이므로 國家가 요구하는 基本秩序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自由는 民權으로서의 自由인바, 이 나라가 自由民主國家이므로 國民은 모두 이 나라의 主人으로써의 自律權을 갖고 있음을 明示함이고, 세 번째 自由는 우리와 우리 子孫들까지 길이 安全하고 幸福하자면 自由가 꼭 있어야 한다는 要旨(요지)이다.

憲法 第一章 總綱이 第9條 [傳統文化와 民族文化] 를 國家는 계승·발전할 것과 民族文化의 暢達(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로 끝나고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章이 시작되었다.

2章의 1條격인 憲法 第10條는 [人間의 尊嚴性과 基本人權保障] 으로 시작하여 11條 [國民의 平等], 12條 [身體의 自由], 14條 [居住·移轉의 自由], 15條 [職業 選擇의 自由], 17條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19條 [良心의 自由], 20條 [宗教의 自由], 21條 [言論·出版·集合·結社의 自由], 22條 [學問·藝術의 자유] 등에 이어서, 37條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尊重·制限] 條로서 大韓民國 憲法에 明示된 自由論이다.

韓國은 明白히 自由民主主義國家임을 憲法을 통해서 確認할 수 있고 이 憲法이 있는 限 政府의 政策도 變함없이 지속할 것이다.

이제 憲法 37條文을 알아본다.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의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위에서 열거한 즉 身體의 自由, 住居의 自由, 私生活 비밀의 自由, 良心의 自由, 宗教의 自由, 言論·出版·集合·結社의 自由, 學問·藝術의 自由 이외에 國民이 해서 國益이나 公益에 害롭지 않은 自由는 制限하지 않으며, 그러한 自由는 輕視될 수 없다 하였으니 重視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②의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한 것은 「國家安全」「秩序維持」 두 條件에 저촉되지 않는 自由는 모두 制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신의 自由가 제한받는 것은 위 두 條件에 저촉된 때문이요 아니었다면 尊重되었을 것이다.」는 말이다.

문제는 여기 憲法 37條 ② 「國民의 모든 自由」가 그토록 所重한가에 있다.

筆者의 연구로 自由를 質的 分析(분석)한바 ‘十 自由’와 ‘一 自由’가 있음을 前節에서 論證하였고, 人類의 歷史가 발전하는 것은 歷史의 主役(주역)들이 ‘十 自由’ 作用할 때였고, ‘一 自由’ 作用하면 混亂 아니면 下落하는 것이 必然的이었다.

각 나라의 政治도 반드시 自由民主主義 體制가 아니더라도 政治人들이 高質自主自由人인가 低質自由人인가에 따라 善政인가 不善政인가 갈라졌었으

나, 民主政治時代에 와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政治한다는 數 많은 사람들의 人間質이 先進民主國家인가 後進民主國家인가를 구별하게 한다.

거듭 말하였지만 政治는 人間이 하는 大事인만큼 民主主義國家에서는 그 國民의 民度(민도) 水準이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民主制度가 善用 惡用되고 政治史도 上·下될 것이다.

그래서 立憲民主主義國家에서는 政治의 基本인 憲法을 嚴正하게 짜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 ‘自由’를 어떤 自由인가 明示하지 않는다면 政治欲이 強한 사람들이 曖昧한 自由를 自己에게 有利하도록 해석하여 正當然하게 된다.

憲法 37條 [國民의 自由와 權利] 條文이 바로 國益과 公益에 큰 害가 되지 않는 自由는 保障하고 重視한다는 것이, 巨視眼的으로 보면 國家 발전을 沮害한다는 것 近視眼的으로 보지 못해서 오히려 助長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實例를 들어 政治人들이 [國民의 自由 權利] 를 옳지도 바르지도 못하게 利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 憲法 15條 [職業 選擇] 條文에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 42條 [議員의 任期]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 70條 [大統領의 任期]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없다.」

滿 天下人이 여기 지적한 三個 條를 놓고 볼 때 公正한 憲法文이라고 할 수 있을까?

15條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겠다. 즉 ‘職業選擇의 自由權’은 마땅히 있어야 할 自由權이나, 좋은 職業은 이 憲法 15條를 앞세워 「누구나 能力껏 언제까지나 오래도록 職業이 保障된다」로 해석해서 國會議員이라는 職業도 制限없이 獨占 可能하다 하여 實行하고 있다.

이 잘못은 憲法 42條가 內包하고 있다.

즉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로 끝나 있다.



憲法 70條에는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이렇게 重任不可를 明示하면서 42條만은 「重任 不可」條文이 없음으로써 三選四選 나아가 十選 以上도 可能하도록 憲法으로 許諾하였다.

이러한 憲法의 處事 옳고 公正하다고 是認해야 옳은가?

이 答은 70條 「大統領 重任 不可」條는 大統領이라는 最高 職位 長期化로 不正 腐敗·獨裁함을 防止함이라 하겠다.

42條로 國會議員 長期 選任을 許容함은 專門的 政治人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70條는 是認하겠으나 42條는 重大한 問題點을 안고 있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國會議員이 專門 職業的 政治人인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國會議員의 存在理由는 全 國民이 參政해야 할 몫을 代身해서 代行하는 代議員이므로 그 役割을 充實히 다 하면 任務를 끝낸다.

그러므로 代行者는 언제 누구라도 바꿀 수 있는 條件附 代役者인 것이요 그 代役者가 主役 國民처럼 終身主役然한다면 主·客을 顛倒한 非民主的 思考方式이다.

바로 그렇게 意識化된 오늘날의 政治人들이 바뀌어야 할 代表자들이요, 그 좋은 자리 固守하려는 낡은 政治人들이 舊民主制度를 不變의 民主原則으로 밀고 간다.

21世紀라는 새로운 歷史期, 後天 새 世界가 열리기 위해서는 20世紀的 政治意識을 早速히 청산하는 精神革命부터 해야 한다.

湖水도 언제나 위에서 새 물이 흘러오고 아래로는 묵은 물이 흘러가야 썩은 湖水가 되지 않고 언제나 살아있는 깨끗한 물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 政治界도 이 原理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憲法 11條는 [國民의 平等, 特殊階級制度의 否認, 榮典의 效力] 이다. 그 條文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社會的 特殊階級の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 ……………」

民主主義國家에서 國民 모두에게 平等한 대접을 한다는 것은 基本的 原則이다. 그러나 憲法 42條는 11條와 어긋난 法 解釋으로 不平等하고 不公正한 國事를 하고 있다.

11條 國民 平等條文이 옳다면 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로 끝나지 말로 「…4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로 돼야 옳다. 마치 70條처럼 大統領의 重任 不可를 憲法이 確認明示하듯 十萬名 市民 國民 中에서 選拔(선발)된 王者의 榮光을 왜 그 사람에게 二選 三·四…十選도 許諾하는가?

그것이 11條 平等條文에 合當하다고 하겠는가?

이것은 法文 解釋의 문제가 아니라 天下滿人의 常識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秋夕 歸鄉 列車표를 사려고 줄 섰는데 앞에 서있는 몇 10名에게 1人당 要求대로 20매 30매 以上 팔고 뒤에 서있는 數百名에게는 賣盡된다고 돌려보내는 處事, 잘했다고 할 사람 不正買票人 이외에 누가 있겠는가?

國會議員은 어찌 列車票와 비교할 수 있겠으며, 그 政治的 所望은 生命력을 쏟아 當選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낌없이 다 하고 싶은 그들이다.

大統領은 一國의 民選 王者에 틀림없다면 國會議員은 一地區 民選 王者임에 틀림없고, 當選 전까지는 地區民의 '심부름꾼·일꾼'으로서 身命을 다 바친다고 했지만 當選 이후는 國家의 主人 十萬名의 몫을 實質적으로 權行하기가 바쁘다.

그것이 國會議員의 正當한 任務이므로, 當選 前의 低姿勢가 當選 後의 高姿勢로 變位되는 것 당연하다고 보아야 하겠고, 出身區民들에게 한해서 低姿勢인 것, 區民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앞날 再三 以上 當選하기 위한 本人의 榮光 長期化術이다.

國會議員이 얼마나 좋은 職位인지 高官·名士·財閥·世人에게 널리 知面된 人士·大學總長級 人士·地域社會에서 돈 많은 人士 등 各계 各층 有名

人士들이 되고자 하는 羨望의 자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되고 싶어하는 最好職이라 할 것이다.

大統領職은 전통적인 말로 표현하면 5년에 한 사람이 누리는 王運의 體得者, 감히 大衆이 바랄 수 없으나, 國會議員은 萬人이 바라는 大運職이요, 十萬 國主(地區 民主國民)中の 一人 王者이기에 이 나라 國民된 者가 바랄 수 있는 最大職인 것이다.

이렇게 最好 最大職으로서의 國會議員職을 自己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以上 終身 當選되고자 하는 그 마음씨 옳다고 보아야 하며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筆者의 質的 自由論으로 보아 어디에 속할까?

自己만 좋자고, 萬人 十萬人이 줄 서서 各者들이 當選되자고 苦待하고 있는데 自己만 두 번 세 번 以上 終身까지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씨는 곧 反民主心理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民主國家에서는 國·市民 모두가 同等하게 나라의 主人이요 王인데 自己 혼자 王 中 王 되겠다는 心理는 古代 君主時代의 獨尊 獨裁心理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自己 마음대로 能力껏 長期 國會議員 되겠다는 ‘自由’는 萬·十萬人 平等權을 無視하고 獨尊的 自由를 強行하자 함이니 民主時代에서는 容恕될 수 없는 反民主人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을 民主政治의 主役으로 選出하여 왔음은 얼마나 잘못된 民主政治를 그 間 하여 왔던가 歷史는 큰 反省을 하여야 할 것이다.

國會議員만이 아니라 道知事, 道·市 教育監, 郡守, 기타 市·道·郡 議會 議員들 한번 해 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以上 더더욱 自己만 하고자 한다.

自己만 하고자 하기 때문에 各種 選舉不正事件이 그치지 않고 續出한다.

왜 높은 ‘長’자리에 執念이 強해 지는가?

모두 憲法이 ‘自由’思想 ‘平等’ 思想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憲法 37條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尊重·制限] 에서 ‘制限’은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에 抵觸될 때 뿐이요 이 경우 이외는 尊重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②項 「國民의 모든 自由」라고 「全 自由」를崇尚하여 왔다.

筆者는 自由란 「모든」이 아니라 ‘十’ 50%만이崇尚할 것이요 ‘一’ 50%는 不可自由여서 禁止해야 할 領域이라 보고 있다.

그런데 憲法은 위에서 지적한 特例의 경우 외는 「모든」이라고 100% 가까운 自由가 偉大하다고 본 점 매우 危險한 自由觀이다.

그 實例가 憲法 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로 끝내고 重任뿐 아니라 終身 國會議員할 수 있도록 門을 열어났다.

人間들이 自由에 대한 質的 分析을 못하는 弱點을 이용해서 「國會議員은 終身토록 할 수 있다」로 解釋하고 事實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憲法을 제정할 때는 嚴密하고 嚴正하게 成文化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國事가 비뚤어지게 나갈 可能性이 높다.

37條는 이렇게 고쳐야 한다.

우선 ②의 「모든 自由」에서 「모든」을 뺀 자리에 「高質的」三字를 代入해야 한다.

人間이 尊嚴한 것도 ‘十 自由’ 高質的 自由의 行爲를 할 때 限해서 인 것이오 偉大한 人間일 수 있다.

‘一 自由’ 低質的 自由人은 不良하고 助長하면 惡毒하며 醜惡하고 亂暴하여 他動物界에서는 볼 수 없는 醜惡態를 自作한다.

筆者는 人生이 왜 萬物의 靈長이라고 하면서 惡行을 하는가 研究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렸다.

큰 나무가 生長을 시작할 때는 微細한 씨앗이 땅 속에서 發芽하므로써 세월따라 大木으로 成長하는 것처럼 人生의 惡心도 初心은 惡인 줄 모른다. 前 自由圖와 人生圖 價値圖에서 明示하듯 0線 直徑線에 있을 때는 善惡이 未分이기에 兩者를 느끼지 못하지만 ‘0’以下로 微動할 때는 惡인 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惡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나’만 보고 남을 보지 못하는 近視眼人生으로 출발함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나만 생각한다. 그것이 習性化 않도록 心眼을 넓혀주는 訓練을 初期 가정에서부터 해야 한다. 만일 하지 않

고 公教育에서까지 誠意있는 先生님을 만나지 못하여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利己心'으로 成長한다.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는 初心이 바로 '利己心の 마음씨' '씨앗 마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利己心이 惡의 初心'이요 善端과 相反端인 '惡端'이라 하겠다.

利己心이 강한 사람은 틀림없이 他人을 보살피 줄 雅量이 없어 社會人으로서 共同體意識이 弱하거나, 없어, 人類의 美德 平等意識을 기대하기 어렵다. 언제나 '나'를 앞세우고 나의 自由만 所重한 줄 알며 他人의 自由 헤아려 주는 民主意識을 찾아 볼 수 없다.

(筆者의 「惡의 研究」는 拙著 : 「民主倫理學 要論」 110~113面 9. 人性和 惡. 拙著 : 「相生倫理學」 97~99面 9. 人性和 惡. 項에 比較적 詳說하였음.)

利己心이 강한 사람일수록 各者 「나의 自由意志」 때문에 他人 또 그러한 眼目으로 보아 同志 아닌 相敵으로 생각한다.

利己主義의 自由는 自己 一身만 잘살고 혼자 偉人然하는 獨存 獨尊意識으로 해서 人尊社會意識은 찾아볼 수 없다.

여기 民主道德은 없어지고 相敵競爭社會가 열려 相生 相和하려는 人間愛가 사라진 날카로운 對立意識으로 人間關係가 打算化된 非情社會로 變質된다.

이것이 人類가 바라는 21世紀 이후의 밝은 未來像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道德社會가 절실히 要請되는 바 어디서 그 端緒를 찾을 수 있을까?

時間觀念을 초월하여 BC 5世紀 孔子의 「恕」의 道德律을 되살리면 可能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引用한다.

「子貢이 問기를 一平生 지켜 갈 行爲의 指針을 한 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孔子 말씀에 그것은 恕라 할 수 있다.」

(「子貢問曰 有一言 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論語 : 衛靈公)

「恕」에 관한 설명으로

「내가 願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己所不欲, 勿施於人.」(衛靈公))

「孔子 말씀에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立身)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면 남도 달성케 한다. 가까운 것을 취하여 남과 비교하면 그것이 仁을 실천하는 방도이다.」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論語: 雍也)

「내가 願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도 하고 싶어 할 것이므로 그도 하도록 밀어준다」는 精神이 '恕'이다.

이 恕의 精神이 質的으로 偉大한 '十平等'인 것이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 할 것이므로 함께 共同善을 達成하자는 偉大한 民主道德이다.

이것이 어찌 BC 5世紀 孔子때만의 道德일수 있을까?

앞으로 21세기가 아니라 210世紀, 아니 永遠히 變할수 없는 眞理의 道德 일 것이다.

筆者가 本著書 本論 第一章을 眞理論으로 시작한 意圖가 어디에 있는가 讀者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眞理는 時間과 空間을 초월해서 언제까지나 變치 않기를 要請하나 事實대로 不變中에 있는 것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그래서 眞理는 古代人이 발굴했어도 언제나 새로운 道理인 것이요 現代人 未來人이라 해도 이 眞理를 벗어나면 「낡은 사람」 「現代 속의 太古人」이 되는 것이다.

民主主義가 人類史이래 가장 발전된 政治方式이라 해도 그 兩翼이라 할 自由와 平等을 質的으로 分析해서 '一'自由人이 되어 利己主義者로 自己만 잘 살고 他人에게 不公平하며 不益을 波及하는 自由民主主義가 된다면 자랑스런 民主主義라 못한다.

萬人을 모두 尊嚴平等하게 대우하는 것이 民主主義라고 하면서 萬人 各자 相敵競爭者로 對立 不平等한 社會가 現代 民主主義社會이다.

내가 하는 行爲는 絶대로 남에게 被害는 없고 했다면 微細하더라도 公益

에 有利한 ‘十’自由行爲만 하고, 내가 좋은 일을 達成했으면 남들도 나와 같이 좋은 일 成事케 하는 ‘十’平等行爲만 한다면 참으로 尊嚴하고 偉大한 世相主役이고 21世紀는 新世紀답게 새 歷史의 章이 열린다.

그렇게 새 歷史가 創造되자면 무엇보다도 나라마다 憲法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大韓民國의 경우 第37條 [國民의 自由와 權利] 條文 ② 「國民의 모든 自由」 가운데 ‘모든’을 빼고 ‘高質的’을 代入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로 끝나지 말고 [國會議員은 單任으로 한다] 를 追加해야 高質自由民主主義 偉大한 先進民主國家가 될 것을 再三 強調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責任者 즉 ‘長’을 選出하는 자리라면 반드시 單任으로 끝내야 新進 人物의 拔擢(발탁) 速度가 빨라져서 國家發展 또한 比例할 것이다.

만일 憲法에서 自由와 平等을 質的 分析해서 ‘十’自由 平等으로 明示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一’低質的 自由·平等社會가 되어 不道德을 助長하는 憲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證明하는 것이 國會議員들 모두, 道知事, 市·道 教育監, 市長, 郡守, 市·道·郡議會 議員들, 기타 選出되는 責任者 ‘長’들 全部가 自己만은 再·三 當選하는 것이 아니라 終身이라도 當選되려는 不當하고 不道德함을 滿喫(만끽) 누리겠다는 儼然한 事實이 현재 存在하고 있지 않는가?

이 不當하고 不公平 不公正해서 不道德함이 確實하므로 道德的 罪를 犯하고 있는데, 憲法이 이것을 許諾함으로써 滿 國民을 道德的 罪人되게 하고 있다는 事實을 直視하고 大悟覺醒하여 早速히 改憲해야 할 것이다.

### 3. 選舉法 全幅的 改革을 위하여

지금까지 國會議員 選舉制度가 크게 잘못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憲法 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로 끝나서 連任을 助長하여 再 三을 넘어 終身이라도 許容한 憲法이 얼마나 不公正한 法文이 되었나 明示하였다.

憲法 11條에 [國民의 平等] 의 原則을 明示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 再三以上 終身까지라도 國會議員 할 수 있도록 成文化한 憲法은 自己矛盾에 빠졌다.

平等은 '公正'을 基準으로 한다.

不公正 不公平하고서는 平等이 存在할 수 없다. 平等의 物理的 事實世界에도 '水平計'가 基準이 되어 높고 낮음을 바로잡아 주듯, 人間社會에서도 平等이 실현되자면 同等한 人權所有者에게 不公正하게 대접하면 正義가 失蹤(실종)된 社會가 된다.

自由 平等을 兩翼 原則으로 하는 民主主義에서 民主實權을 驅使할 國會議員을, 한 사람에게 「能力껏 몇 번이고 하라!」 한다면 自由만 尊重하기 위해서 平等의 原則을 犧牲(희생)시키는 不正民主主義가 된다. 그것이 바로 '一自由'低質民主主義임을 多角的으로 論證했다.

이러한 低質自由民主主義를 청산하기 위해서 國會議員 뿐만 아니라 모든 選舉에서 單任되도록 大幅的 制度革新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憲法부터 改正해야 한다.

### 第3章 國會

#### 第40條 [立法權]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로 끝나지 말고 다음과 같은 但書가 붙어야 한다.

「但 國會議員選舉에 관한 法律은 國會에서 立法하지 않고 國民總意에 의하여 綱領을 짜놓기 위하여 地方選舉管理委員會에서 民意를 糾合,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서 選舉法을 制定한다.」

이 但書를 追加함으로써 國會議員이 自己들에 관한 法律, 本人이 有利하도록 我田引水格 法됨을 防止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나라의 主人으로서 全 國民이 代役者(심부름꾼)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法만은 우리 모두의 뜻대로 立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法까지 지금처럼 國會에서 國會議員의 손으로 立法된다면 全 國民이 길이 길이 民主國家의 主人된 實權을 포기하고 代役者 심부름꾼에게 全權을



讓渡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憲法 41條가 다음과 같이 改正되어야 한다.

③項 「國會議員의 選舉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다음에 「이 法은 國會에서 關與하지 않고 國民總意를 地方選舉管理委員會에서 糾合,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서 制定한다.」

이 두 但書가 붙음으로써 名目民主主義가 正名民主主義로 改革되는데 성큼 앞당겨 갈 것이고 民主國民의 主權이 뚜렷하게 設(立) 것이다.

이제 國民總意를 어떻게 糾合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 있다.

결코 이것을 거창한 國民總意投票로 생각할 필요없다.

조용한 選舉革命위한 嚴肅한 國民總意投票이다.

다음과 같이 할 것을 提議한다.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서는 問案件을 簡明하게 작성하여 地方選舉管理委員會에 보낸다.(以下는 中選委 또는 地選委라 約稱한다)

② 地選委는 管轄 市·郡 內 邑·面·洞 事務所 責任者에게 問案紙를 郵送한다.

③ 邑·面·洞長은 里長 또는 班長에게 問案紙를 郵送한다.

④ 里長 또는 班長(以下 里·班長이라 約稱함)은 직접 里民 또는 班民(以下 里·班民이라 約稱함) 中 選舉權이 있는 住民에게 配付한다.

⑤ 里·班民은 각자 自己 집에서 1日동안 깊이 생각하여 答을 쓰면 다음날 里·班長이 訪問하여 거두어 간다.

⑥ 里·班長은 곧 邑·面·洞長에게 전달한다.

⑦ 邑·面·洞長은 地選委에게 郵送하는 것으로 國民總意 전달 事務는 끝난다.

이렇게 國民總意投票로 할 일 조용하고 慎重하게 國民의 뜻을 밝힌다.

但, 問案紙에는 반드시 國民 각자 自己의 姓名을 쓰고 도장을 찍어 自身의 책임있는 所信을 確認한다.

國民總意投票에 대한 開票事務에 해당하는 節次는 다음과 같다.

① 地選委는 郵送되어 온 問案紙를 問案 1, 2, 3...혹은 가, 나, 다...의 答을 統計낸다.

예를 들어 「國會議員 任期는 3年 4年 5年 가운데 몇 年이 ( ) 좋다」 할 때 3, 4, 5의 각 %는 얼마이다.

② 各 地選委는 統計를 中選委로 報告한다.

③ 中選委는 全 地選委 統計를 集計한 結果로 全 國民의 뜻을 파악한 바, 이 結果를 國會議員 選舉法의 總綱으로 삼고, 細則은 中選委 地選委 委員과 選舉事務에 專門的 知識이 있는 人士를 필요한 만큼 초빙하여 制定한다.

以上 選舉法을 民意에 따라 制定하는 方途를 講究해 보았다.

國民總意 設問 例案을 들어본다.

### 〈국회의원 선거법에 관한 일〉

1. 선거구는 大( ), 中( ), 小( )

좋은 곳에 (○)표 하시오.

예를 들어 大선거구는 50만명에 3~4명 뽑음. 中선거구는 30만명에 2명 뽑음. 小선거구는 각 시·구마다 1명 기본으로 하고 15만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한다.

2. 전국구 국회의원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 필요한가?( ) 불필요한가?( )

3. 국회의원 단임(한번만)해야 하나?( ) 연임(여러번)해야 하나?( )

4. 연임할 필요가 있다면 2회( ), 3회( ), 무제한( )

5. 국회의원 임기(任期)는 3년( ), 4년( ), 5년( ).

### 〈국회의원 보수(報酬)에 관한 일〉

1. 나라의 주인 국민이 심부름꾼 국회의원 보수(月俸 또는 年俸)는 정확히 알 의무가 있다.( ) 알 필요 없다.( )

2. 보수는 월봉 장관급 ( )

1000萬원 ( ), 700萬원 ( ), 500萬원 ( ) 기타 ( )

以上 民主國家의 主人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基本件을 앞으로써 國會議員은 自重하지 않을 수 없으며, 國會議員보수가 과중하다, 자기들 멋대로 名目を 달아서 自給한다는 등 不美로운 世間評을 막기 위해서도 金錢문제는 國民 앞에 公開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國民總意에 의한 選舉法이 制定되어서 國民이 바라는 公正한 審判으로 正直하고 올바른 人格者 政治人이 選出되어야 新世紀의 新民主國家가 建設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20世紀까지의 낡은 政治人을 선출하던 方法과 비교하여 前轍을 踏襲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間 어떤 사람이 國會議員으로 당선되어 政治家로 登場했던가?

첫째 「내가 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야 한다는 強意志가 第一 앞자리 차지 할 것.

둘째 政黨組織조직이나 人的 關係組織이 緻密할 것

셋째 돈이 豊足히 있어야 할 것 등이다.

主로 이 三大條件을 合算해서 高得點한 사람이 當選確率이 높다.

물론 넷째 다섯째 등으로 人格 學歷 社會經歷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上順位는 本人의 政治欲求의 強度, 政黨組織과 人間關係組織, 돈이 上座에 있던 것은 속일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政治風土 속에서 政界에 登壇한 政治人들을 道德적으로 평가해서 尊敬할 만한 人格 高段者인가 아닌가 따진다면 그 評價值가 다르므로 기대에 一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政治人에 대한 評價는 그 基準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新世紀의 新政治가 열리기 위해서는 「政治 따로 道德 따로」 式의 二元的 二重人間이 아니라 統一人格者로서 人間的으로 圓滿하며 政治적으로도 權謀術數가 없는 表裏一致한 不變人士가 要請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選舉實態를 選舉法規(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規集 : 中央選舉管理委員會 2000年 刊)에 근거하여 알아보면 國會議員候補者 選舉 등록

하면 地選委에 2000萬원 寄託金を 납부해야 하며(但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의 100分の 20 以上일 때 반환받고 以下일 때 반환 받지 못한다.) 17日 選舉運動其間에 選舉運動 法定 費用은 忠南 洪城 靑陽郡 地區의 경우 1億 2千 9 百만원 所要함을 算出했다.

正直하게 法定 費用 이내로 사용하고서 當選된다고 社會人이 是認하는지는 立候補者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陰性 陽性’이라는 말은 醫學界에서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選舉風土에도 얼마나 陰性的으로 浸透를 잘 하는가 하는 것도 術數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如何間 選舉를 통해서 政界에 進出하려는 候補者들은 熾熱(치열)한 選舉戰으로 政友가 政敵되어 「너를 꺾어야 내가 선다(立)」는 反愾心이 누가 더 強한가로 勝戰者가 決定된다. (愾心은 己(나)欲立而 立人(他人) 己欲達而 達人)

自由民主社會의 善意의 競爭이라는 것이 結果는 惡意의 競爭社會가 되는 것 막을 도리가 없게 되었다.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規」가 아무리 치밀하게 不正 禁止法을 제정했다 해도 選舉不正이 根本的으로 防止되지 않는 것은 選舉制度 자체가 잘못 되어 政治人들이 同志요 政友가 政敵이 된 原因을 除去하지 않고 助長하기 때문이다.

왜 自由民主原則을 競爭的 方法에서 찾는가?

競爭 자체가 一種의 非物理的 非暴力的 戰爭인 것이다.

競爭이 開戰되면 서로 敵이 얹될 수 없는 必然的 相敵이요, 相敵間에는 온갖 智謀를 짜내어 相對를 쓰러뜨리려 全力을 쏟지 않을 수 없어 不正의 線도 넘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選舉方法을 꼭 革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새로운 人才를 選出하는 方法의 原則을 세워본다.

① 選舉를 ‘選舉戰’이라 하는 말처럼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기듯, 鬪士型 人士 權謀術數에 能한 人士의 智略으로 民心을 左右하는 선거풍토는 청산될 것. 즉 立候補者는 뽑힐 사람, 國民은 뽑는 사람이니 엄숙하게 國民의 處事를 기다릴 뿐, 善心을 써서 民心을 사려하는 過去式 方法은 없어져야 할 것.

② 選舉運動이 사라져야 할 것.

선거운동을 잘 해서 當選되고, 人物됨은 뛰어났는데 선거운동이 부족해서 落選되는 일이 있어서는 國家的 損失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本人이 아니해도 地選委가 立候補者를 책임지고 충분히 弘報할 것.

③ 人物은 가장 뛰어났는데 淸貧해서 政界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政界가 꼭 필요로 하는 人才인 것을 돈이 없어 不出하는 것은 國家的 損失이기 때문에 참 人才가 出世할 門戶가 열려야 할 것이다.

여러 條件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위 三個條 問題點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나라 政治界가 大革新 될 것이다.

選舉戰이 政界入門의 緒戰이어서 이 싸움부터 이겨야 끝없는 本戰士의 資格을 取得한다는 觀念이 없어야 人類平和史의 一役人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選舉戰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政黨組織 人間關係組織임을 法으로도 是認 積極적 활용하는 것을 許容하고 있으나, 이것도 문제가 있다.

人物은 뛰어날 것 없는데 黨과 人的 關係가 莫强해서 當選을 여러차례 한다면 좋은 일이 아니다. 마땅히 改善되어야 할 일이다.

人物은 그 地方에서 自他가 共認하는 名士인데 돈이 없어 政界 進出은 念頭에도 두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選舉制度가 너무도 큰 잘못이 있어 人才를 놓치는 것이다.

人才 本位 無一錢 當選할 수 있는 選舉制度가 講究되어야 하겠다.

〈新 選舉改革 案〉

1. 立候補 資格 : 大韓民國 國民으로 해당 地區에 五年 以上居住하는 者.

2. 立候補 登錄 : 投票日 100日 ~ 90日 前까지

3. 弘報 : 地選委에서 登錄 마감 후

20日 즉 投票日 70日 前까지 全 選舉權者에게 候補者略歷 政見書를 郵送한다.

4. 選舉運動 : 없다.

選舉運動이 있다면 넉넉한 時間이 運動 되어 人物評은 波及한다.

選舉權者 全員에게 個別的 弘報書 送達 끝났으면 더 以上の 宣傳은 浪費이다.

5. 寄託金 選舉運動費 기타 費用 : 없다.
6. 個別的 選舉運動 : 없다. 運動 지적되면 立候補 취소된다.
7. 無組織, 無運動, 無金錢 三無選舉가 特色이요 오직 本人의 人間實力과 人間됨이 全資本이다.
8. 弘報用 略歷 : 명함판 4배 寫眞과 2000字 以內로 略歷과 政見을 作成한다. 以上

이렇게 현재까지 政界進出하자면 本人의 過熱된 政治欲求와 本人의 能力 아닌 背後 組織의 힘과 돈·金錢力이 크게 지배했다는 사실이, 뽑아야 할 人才를 埋藏케 하여온 國家的 大損失이었으므로 더 이상 계속하면 民主主義 政治史는 下落할 것이다.

20世紀까지 分派되어 투쟁하던 政界는 서로 不信하여 敵對視하여 왔지만 21世紀부터는 政界構造樣相이 달라져야 하겠다.

그래서 公的 政治人이라고 하는 國會議員의 門을 활짝 열어 眞實하고 正直한 사람이면 國民이 받들어 모시는 形式의 選舉制度가 講究되어야 했다.

舊態依然한 政界를 청산하자면 憲法이 옳게 改正되고 특히 政治人을 뽑는 選舉法부터 旧政治人의 手中에서 解放되는 것이 急先務였다.

憲法 選舉法이 矛盾의 素地가 뚜렷한 상태에서는 不信 不正이 發生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이 私的으로는 欺他 自欺인 것이다.

「國民은 平等하다」고 하면서 「國會議員은 하는 사람이 몇번이든 終身까지도 할 수 있다」는 不平等은 秋夕歸鄉列車표 한 사람에게 몇 10장 아니 百장 이상 팔고 뒷줄에 서있는 사람에게는 賣盡되었다 안 파는 것 以上の 不公正 不平等을 犯하는 國政의 不正이다.

이것이 「自欺」 「自己矛盾」을 犯하는 國政의 實例이다.

## II. 精神開闢

### 1. 生物學的 人生精神

‘精神’이란 무엇인가?

이 답을 어렵게 하지 않고 萬人이 共認할 수 있도록 平凡하게 「意識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意識이 왜 생기나?」 할 때 「살아 있는 生物 모두가 살아 있음의 표시이며 앞으로 살아갈 뜻을 밝힘이다.」라고 답한다.

그러면 生物 中에도 動物은 이해가 가나 植物에게도 意識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할 것이다.

筆者는 「植物도 生物이므로 살아 있음의 표시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뜻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그 證據가 있는가? 추궁할 것이다. 답은 「모든 植物이 살았다면 成長하고 繁殖作用을 하고 있는 바, 그 本能作用을 無機體 機械의 動作과 같다고 보는가?」 反問부터 하고, 筆者는 植物의 生動과 機械의 動作과는 本質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植物의 生動은 有意的 動作이요 機械의 動作은 無意的 動作이다」라고 답한다.

植物이 비록 말은 못하지만 살아있다는 표시, 길이 살겠다 生殖現象을 볼 때 그들의 生意志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

지난 여름 90年만의 큰 가뭄 속에서 農作物이 살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生者의 生意志를 實感할 수 있었다.

正午 前後해서 灼熱하는 太陽으로 植物들이 타는 듯 시들다가 다음날 아침에 곳곳하게 서있는 것을 보면 억센 生意志에 머리가 숙여졌다.

어찌 여기에 植物이 말 못한다고 살겠다는 뜻도 없다 하겠는가?

植物界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者 있고, 견디지 못하여 죽는 者도 있다. 이 生과 死 두 갈래 길에서 生路를 가는 者는 生意志라고 하는 그들 나름의 精神이 強하기 때문이다.

精神이라고 하는 概念을 觀念論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生物學的으로 精神을 實證하면 ‘精神開闢’이라는 主題 接近에 매우 有利하리라 본다.

살아 있는 모든 者에게는 植物까지도 生意志가 있는 限 곧 그것이 살려는 精神이라 보므로 어두운 곳에서 싹이 터서 자라나는 풀 한 포기 밝은 곳으로 머리카락이 生長하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本能으로 그런 것이다」라 생각하지 말고 어둠 속보다 밝은 곳을 더 좋아한다는 生者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드시 文字로 글을 써야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늦가을 陽地에서 黃金빛 菊花가 화려하게 꽃피고 그윽한 향기를 내 품는 것 보고 느끼는 이 事實,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높은 뜻을 實感나게 한다.

이렇게 生者끼리 살았다는 事實로 해서 풀 한 포기 菊花 한 그루와 人生인 '나'와 情이 通하고 마음을 서로 理解할 수 있다.

이 事實을 보면서 읽지도 通하지도 못한다면 그래서 植物에는 生意志따위 없고 精神이 감히 어디 있단 말이냐 한다면 無意 無心論의 生命論者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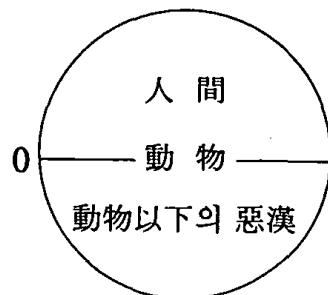
더구나 宇宙內 生成世界는 말이 없고 領域이 너무나 廣大하여 焦點 맞출 수 없어 보지도 읽지도 느낄 수도 못한다고 宇宙精神이 어디 있는가 라고 가볍게 否定할 것이다.

그래서 生者 有意 有心論 側은 非觀察的 非科學的 感想的 藝術的 詩的 抒情的 獨白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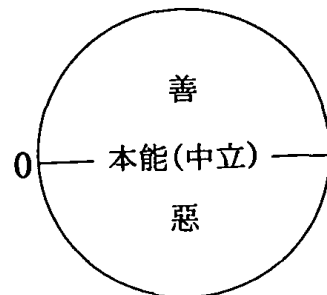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 온 植物有心論은 精密한 觀察에서 나온 주장인 것이요 感傷主義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인정하기 바란다.

다음 圖表로 生者有心과 精神世界를 밝혀 본다.

人生圖



價值圖





筆者는 人生을 人性論的 側面에서 觀察할 때 ‘善하다’ ‘惡하다’라는 二者中 하나이거나, 二者 모두 있다 하는 善惡觀으로 보지 않고 그러한 價値觀이 어떻게 생기는가부터 따지고 그러한 精神이 모두 偉大한가를 反省하자는 立場에 있다.

그래서 人性으로 말하면 性善도 性惡도 性善惡混도 아닌 性自由論的 人性觀이다. 性自由論이란 人生은 나면서부터 善·惡을 알지 못하며 成長하면서 선택하나 반드시 善惡 둘 中 하나만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善惡문제와 떠나서 自由롭게 살 수도 있으며 두 價値觀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自體가 自由라는 人性觀이다. 이러한 人生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人生은 철저한 自由人이라고 보고 있다.

그 自由人論은 本論文 I의 1에서 「自由와 平等의 調和와 無自欺」의 主題로 「自由圖」와 함께 「平等圖」를 並示하여 詳說하였다.

그 要旨만 再論하여 精神開關論의 머리글로 삼을까 한다.

人生이 自由人일 수 있는 것은 生理構造가 他動物보다 高級스럽게 構成되었기 때문이요, 多幸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腦細胞도 精密하고 뛰어나게 구성되어서 知的, 情的, 意的 能力이 優秀하다는 것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自由圖의 ‘十’自由와 ‘一’自由는 他動物들이 圓의 直徑線인 ‘0’線 즉 自然必然의 法則대로 살아가는데 人生만은 특히 腦세포가 精密하여 自然法則 以外の 人生 自造法則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깊이 생각할 것은 腦세포가 優秀하다 해서 人生이 모두 優秀하다고 自讚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 知能이 뛰어났다는 것은 記憶力 推理力 創造力 등이 優秀하다는 것이요, 곧 「善하다」는 價値를 實踐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腦機能이 優秀하여 知能이 높다하면 곧 뛰어난 人物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상관관계가 먼 臆測이다.

그 좋은 知能을 어디다 어떻게 活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優秀한 人物 뛰어난 人物도 될 수 있고, 보통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知能犯罪者가 될 수 있는 自由人이 人生이다.

이제 人生圖 價値圖를 解明하기로 한다.

### 〈人生圖〉

人生이 ‘十·一’ 自由의 選擇에 따라 階級이 있게 마련이라면, 正常的 高級 人間됨의 위치는 어디이며 人間이라 불러 줄 수 없는 人生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여 본 도식이다.

②의 人生圖式으로 보면 圓의 面積전체를 人生이라 보고, 人生속에는 正常的 人間과 動物의 人生과 動物 以下の 惡漢으로 三等分되었으나, 그 數(面積의 比率)는 세 영역에 대한 각자의 選擇의 自由에 따라 일정치 않다.

物質所有의 階級化는 사회적·정치적 制度에 따라 發生한다고 하여 外在的 조건에 原因이 있다고 하지만, 人間의 本質的 階級化는 自身の 自由가 선택한 自業自得이다.

動物的 本能充足에 만족하는 수와 動物만도 못한 惡漢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정상적 人間의 수는 감소될 것이고, 반대로 動物 以上の 人間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동물 이하의 악한은 극소화 될 것이다.

②의 圖式은 이처럼 人類社會가 크게 세 가지 階級으로 분류된다는 뜻을 표시하였지만, 다시 압축하면 人生의 內面世界도 세 가지 可能性을 共有하였다는 生物學的 人性觀이기도 하다.

이러한 生物學的 人性觀은 곧 性三品說과 다를 것 없지 않는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백히 다른 점 性三品說은 決定論的 人性觀으로서 自由論的 人性論과는 相反된 견해라 하겠다. 즉 性三品說은 上品과 下品은 不變하는 人性이고 中品만이 可變的 自由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性自由論的 立場은 어느 누구도 他人을 계급적으로 品位를 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本人 자신도 自己를 어느 品位에 固定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流動상태임을 自覺하는 것이 精確한 自己發見이며, 그 위치가 새로운 自身을 創造할 契機點 임을 覺醒시키는 人性觀이다.

### 〈價値圖〉

生物學的으로 動物的 人生이 어떻게 善과 惡을 관정하는 價値觀이 成立될 수 있는 가를 도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②의 그림에서 같이 圓의 直徑線은 自然·必然의 法則에 지배되는 動物圈이라 본다면 人間 또한 生命體로서 肉體的 구조조건을 떠나서 人間存在를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모든 動物들이 必須的으로 共有하는 生의 基本的 本能線이다.

이러한 本能的 生存에 관해서는 善과 惡으로 평가할 수 없는 價値中立的 境界圈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食欲과 性欲이라는 基礎本能은 生命體의 成長活動 生의 延長을 위한 生命法則인 것을 만일 ‘醜하다’ 혹은 ‘惡하다’고 평가한다면 그 價値觀은 生命體가 生命原理를 모독하고 부정하는 自己矛盾을 犯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食生活과 性生活이 크게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賤하게 보는 사람을 高尚하다고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僞善者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圖式 說明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本能線(直徑線)은 이처럼 모든 生命體가 필연적으로 지켜야 할 法則이기 때문에 善·惡 價値觀 未分의 中立的 境界圈인 바, 本能 以上이(圓의 直徑線 이상) 善이 되는 까닭은 一身의 本能的 快樂에 만족치 않고 父子를 위시해서 全 人間社會 내의 關係를 仁·義·禮·智·信·忠·恕 등 高次元의 美德을 실천해서 人類社會 全般에 걸쳐 和樂하게 하기 때문에 ‘善’이 확증되는 것이다.

다음 本能 以下가(直徑線) 惡이 되는 까닭은 高度로 발달한 智能을 自己 一身만을 위하여 과도하게 作用하면 그 被害가 人間社會 널리 波及되어 ‘惡’이요, 이것은 他動物界에서 찾아볼 수 없는 人生 特有的 暴權亂動이다. 그래서 惡을 犯하는 者는 自然의 攝理대로 살아가는 動物만도 못한 存在이기에 ‘動物 以下’圈에 타락되었음을 圖表가 明示하고 있다.

性自由論的 存在로 태어난 人生이 이와 같이 正常的 人間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本能대로만 살아가서 無害無益한 動物처럼 살아가는 動物的 人生이 있는가 하면 動物만도 못한 有害無益하고 每事 惡한 行動으로 一生을 끝내는 惡漢이 있음을 人生圖와 價値圖가 表明하고 있다.

人生界는 이러한 心性의 所有者들이 共生하는 삶의 場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心性이 固定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善만 할 수 있고 無善 無惡하여 自然의 動物과 草木 같은 價値中立 人生으로 살다가 惡한 心性이 씩트는 素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가 自然科學 中에서도 生物學的 立場에서 公正하게 人生을 觀察한 人性이라고 筆者는 主張한다.

## 2. 精神開關의 길

여기까지 人生의 現住所를 찾아왔다.

人生이 惡性を 發動하여 惡漢이 될 것인가, 善·惡에 關心없이 自然의 攝理대로만 살아갈 것인가, 無惡 唯善人으로 살 것인가 各者 選擇의 自由에 一任되었음을 밝혀왔다.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當然히 ‘十’ 自由의 길을 따라 無惡 唯善人이 되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所望을 無自欺하기에 努力할 따름이다.

人生은 틀림없이 自由人이므로 하고자 하는 意志가 뚜렷하다면 하고야만 다.

그러나 ‘作心三日’이라는 말을 만든이도 人生인 것처럼 決心이 不遠 解心될 可能性이 따라다니므로 無自欺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마음의 거울이라는 心鏡을 無時 必須 必隨해야 할 일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自體가 流動的이어서 變德을 자주 부린다.

流水도 人間이 힘들여 大堤防을 쌓아 올리면 大湖水를 山中에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이 流水같은 無常心을 常心化해야 한다.

精神開關도 이런 脈絡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精神開關이라는 課題를 어느 누가 식혀준다고 생각하여 그 날 그 누구를 기다린다면 그 期待는 永永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精神’이라는 것 自體가 各生命體마다 살아 있다는 證據로서 自己 몸 가슴속에 간직된 生命本質인 것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造作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開關이 어두운 洞리에 電氣工事を 끝내고 始動으로서 첫 스위치를 누르면 즉 點火하면 暗村에 即時 光明이 오듯 그렇게 精神開關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 精神은 내가 개혁하는 것이요, 남이 개혁시켜 준다고 하면 自主人生이 아니라 從他人生 他律的 人生으로 남이 操縱하는 대로 끌려가는 人生이 된다.

그렇게 남이 내 마음을 개혁시켜 주기를 기다리면 시켜줄 사람이 끝내 오지 않을 때에야 「속았다!」하고 痛歎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은 내가 움직이고 나만이 有心 無心を 確認하는 唯我心인 것을 그 누구가 나타나서 電燈에 불 켜 주듯 精神開關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精神이 무엇인가」조차 몰라서 「開關이 무엇인가」는 더더욱 모르는 것에 대한 幻想的 期待人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신개혁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精神이 무엇인가」 말 工夫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筆者 그래서 이 節 머리에서 「어둠속에서 싹트는 풀에도 뜻 즉 精神이 있다」로 시작하였다.

살아가기가 힘겨운 逆境을 克服하느냐 못하느냐, 삶을 지속하느냐 끝내느냐가 바로 精神에 달려 있다.

精神開關의 문제는 어떤 逆境이라도 克服할 수 있는 精神力을 어떻게 造成할 것인가에 焦點을 맞추고 展開해야 할 문제이다.

精神 養性하여 強化할 줄 모르고서 修道 修鍊에 힘쓴다면 그 修道는 主人 없는 집 客이 華麗하게 꾸미는 格이라 하겠다.

精神의 政體에 관해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理解가 없는 사람은 그 偉力이 없다 하겠고, 안은 사람은 善人 惡人 真人 僞人 기 타 그 ‘人間됨’ 모두가 그의 ‘마음 씬’이라 할 精神이 ‘人間의 本質’임을 確認할 것이다.

그래서 孔子는 다음과 같이 言明했다.

「孔子 말씀에 잡으면 있고, 버리면 없어지며, 때없이 드나드니 그 있는

곳을 모르겠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마음(心)을 두고 한 말이다.」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孟子 : 告子上)

孟子는 이와 같이 孔子의 말을 引用하여 사람은 누구나 仁·義·禮·智라는 道德本能이 잠재하고 있으며 良知·良能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思則得之」하고 「不思則不得」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自身을 省察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쉽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孟子는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을 것을 力說하였으니 그것이 「求放心」이다.

「仁은 사람의 마음이요 義는 사람이 지키고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고도 찾을 줄 모르니, 슬픈 일로구나.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개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면 찾을 줄 알지만, 그 마음(仁心)을 잃고도 찾을 줄 모른다.

學問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마음을 되찾게 할 따름이다.」

(仁人心也, 義人路也. 舍其路而弗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鷄犬放, 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 (孟子 : 告子上)

萬古의 名言으로 萬人의 입에 愛頌되는 구절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人間된 本質은 道德心이라 하겠는데 그것을 닭이나 개 한 마리 만큼도 생각지 않는 大衆을 개탄하고 그것을 환기시키는 痛恨의 絶叫이다.

道德心を 잃은 사람은 人間의 本質을 잃은 사람이요, 道德心이 사라져 가는 때를 人間喪失時代라 하겠으며 現代가 바로 그 시대인 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실한 警告라 하겠다.

이제 主題 精神開關의 可能性을 孟子의 盡心思想을 통해서 찾기로 한다.

「孟子 말씀하기를 그 마음을 다 하면 그 性을 알 수 있고, 그 性을 알면 하늘을 알 수 있다.

그 마음을 保存하고 그 性을 기르면 하늘을 섬기는 까닭이 된다고 하였다.」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孟子 : 盡心上)

여기 「盡心 知性 知天」은 곧 '나'와 '天'이 直結되어 있음을 闡明(천명)한 大哲言이다.

人生뿐 아니라 宇宙 內 生存者는 모두 各己 各心이 있음을 確認할 수 있음으로 내 마음을 깊이 慎重하게 自省 自察하면 宇宙의 原理로서의 天意를 道破할 수 있다는 말이다.

宇宙 內 萬物이 살아있다면 生意志가 있겠고, 그 生意志를 精密하게 觀察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바, 微視世界의 微物로부터 巨視世界의 巨物까지 達觀할 수 있다.

이 境地에 이르는 것을 '道' 즉 '眞理'에 '通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道通'이 아닐 수 없다.

'道通'이라는 概念을 어느 特殊 宗教의 所望世界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觀念論이 아닌 實證論的으로 宇宙의 生成原理따라 태어난 者 모두 宇宙의 뜻·原理를 간직하였으니 그것이 '性'이요 性대로 살아가면 즉 '率性'하면 善하지 않을 수 없다는 宇宙道德을 깨닫게 된다.

宇宙의 生成原理를 通察하여 達觀하는 道通, 그 第一步가 無自欺로부터 시작하니, 自身을 속이는 自欺者는 自性도 모르니까 他性·萬物性과는 完全 막혀 萬事에 無知人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各者 自身에게 眞實하는 無自欺가 「盡心」 「知性」이요 「盡心 知性한 者」는 곧 「知天」하니 天道까지 막힘 없이 활짝 열린다.

이것이 바로 「열개」字 '開'와 「열벽」字 '關'이 숨한 '開關'이요, 모든 사람이 自己 良心의 門까지 꼭 막는 自欺의 門을 활짝 여는 無自欺로부터 精神開關의 門이 열린다.

이렇게 精神開關은 第一步 無自欺부터 철저히 天까지 一絲不亂하게 通하여 道通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 結 論

本 論文을 읽기 전에 目次만 보면

1. 自由와 平等의 調和...
2. 憲法 꼭 고쳐야 할 곳
3. 選舉法 全幅的 改革을 위하여

로 시작하여 主題 ‘無自欺와 精神開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論文이 아닌가 의아스럽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現代는 民主主義時代라 하고 나라마다 民主政治를 잘 해 나간다고 하나, 現代政治의 方式 자체가 政治人들이 서로 分裂되어 權力을 장악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 政治 本然의 行態가 아니다.

每日같이 보도되는 政界뉴스라는 것 보기가 싫어 外面하지 않을 수 없는 現象, 現代史의 모습이다.

不正社會이기에 正義社會 具現을 政府가 내걸고 있으며, 不信社會이기에 民·官 모두 信義社會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망하고 있다.

그것은 所望일 뿐 달성될 可能性은 보이지 않는다. 原因은 民主主義의 兩翼이라 할 自由와 平等이 相合되지 않고 相剋關係에 있어 各者 自由를 내세우면 平等이 희생되고 平等을 强行하면 自由가 희생된다는 事實 때문에 民主主義가 最善의 善의 哲學인 듯 하면서 相爭不和의 政治學이 되고 있다.

筆者 本 論文에서 I章 ‘無自欺論’의 1節 ‘自由와 平等의 調和와 無自欺’를 舉論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2節 ‘憲法 꼭 고쳐야 할 곳’과 3節 ‘選舉法 全幅的 改革을 위하여’를 長說한 까닭 또한 不正 不信한 社會가 된 責任이 政府의 政治에 있음을 憲法을 지적하여 例證하기 위해서였다.

道德哲學과 民族宗教에서는 社會의 不正 不信이 各者가 自信을 속이는 自欺로부터 出發 擴大되어 世相이 비틀어지고 不信하게 되었다고 본다.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할 政治人들 國會議員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 잘못된 法을 만들어 그에 基準해서 國事를 處理하는 것, 옳다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I章 1, 2, 3節이 長說되었다.

II章 精神開關論 1節 ‘生物學的 人生精神’論은 「生者 必有 精神」論인바,



풀 한 포기로부터 宇宙 萬物까지 살려는 生意志로서의 精神을 論證했고, 2  
節 精神開闢論은 孟子의 ‘盡心 知性 知天, 存心 養性 事天’ 思想을 通해서,  
내 마음을 最善 다할 때 天心과 相通함을 確認하였다.

내 마음 곧 天과 通함이 精神開闢의 門을 활짝 여는 것이고 道通도 멀지  
않음을 示唆(시사)함이다.

